



◀ 강인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여성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해주는 극중 후남이의 모습.

주제 잘 소화해낸 뛰어난 형식

대결구조 피하고 싶은 시청자 욕구에 부합,

남녀문제 인간 자체의 것으로 끌어안아

MBC 주말연속극 〈아들과 딸〉이 새로운 형식의 페미니즘 드라마 시대를 예고하며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10월3일 첫방송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방영 3주만에 각종 시청률 집계에서 1위를 차지한 후, 줄곧 60%에 달하는 높은 시청점유율을 보이며 쾌속항진 중이다.

〈아들과 딸〉은 페미니즘 드라마다. 이 드라마의 극본을 맡고 있는 박진숙 씨는 “〈아들과 딸〉은 남아선호사상으로부터 시작되는 남녀차별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인지 알리고자 쓰여지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로 이 작품의 기획·집필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들은 이것이 본격적인 페미니즘 드라마라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며 이 연속극을 즐기고 있다. 페미니즘 드라마라고 하면 흔히 ‘드라마 게임’ 류의 갈등과 대결의식, 사건과 오해와 파탄이라는 요소들을 연상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과 딸〉에는 그런 요소들이 거의 없다. 또 설령 있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외피에 감싸여져 매우 자연스럽게 정감어린 형태로 변형돼 나타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을 시청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성으로서의, 또는 남성으로서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페미니즘 드라마 같지 않은 페미니즘 드라마. 바로 〈아들과 딸〉의 성공의 비밀인 것이다.

〈절반의 실패〉나 그 외 각종 여성문제를 다룬 드라마들의 일정한 성공은 각 방송사로

하여금 수많은 페미니즘(또는 그것을 표방한) 드라마를 양산케 했다.

그러나 중년의 위기나 남편의 외도, 버림받은 여성의 복수라는 테마에 익숙해져 버린 시청자들은 이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또한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인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여성 의식의 성숙은, 일차적인 남녀의 대결 구도가 아닌, 좀 더 관조적이고 이성적인 자세로 남녀의 문제를 인간 자체의 것으로 끌어안을 줄 아는 드라마를 요구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아들과 딸〉은 바로 이와 같은 시청자들의 감춰진 욕구를 정확히 꺼집어내 현실화시켜 줌으로써 현재와 같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이다.

〈아들과 딸〉은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의 남성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고 있다. 남녀차별의 문제는 여성만의 것이 아닌 인간 공통의 과제라는 의식이 내재돼 있는 이와 같이 성숙된 주제의식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이 드라마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들과 딸〉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끌어들이 수 있는 몇가지 장치들을 드라마 이곳저곳에 깔아두고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제를 위해 현실을 과장하는 법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정공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적 접근 방식과 그로 인한 드라마의 편안하고 진솔한 분위기가말로 〈아들과 딸〉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이다. 굳이 갈등을 증폭시켜 충격적인 상황을 끼워맞춰 놓지 않고서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원일기〉나 〈산너머 저쪽〉과 같은 드라마에서 이미 증명된 것이다. 〈아들과 딸〉은 일상적 삶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철저한 남아선호사상의 어둡고 깊은 뿌리를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써 진실이 지니는 강한 위력으로 시청자들을 설득한다.

또한, 극중의 후남이가 보여주는 강인하고 성실한 모습은 많은 여성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주부 이해숙(36) 씨는 “여자도 저렇게 똑똑하고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뿌듯하게 할 정도”라는 말로 그러한 여성들의 느낌을 대변한다. 지금까지의 드라마들에서는 대개 강하고 총명한 여성을 ‘여자답지 못한 여자’로 은연중 매도하거나 결국에는 사랑에 굴복하고야 마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경향이 강했음을 감안할 때 이 드라마의 구성은 발상전환의 계기로 중요한 몫을 해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뛰어난 극본과 치밀한 연출, 훌륭한 연기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조화며 향수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복고적 시대 설정 등도 〈아들과 딸〉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장점들이다.

〈아들과 딸〉은 우리에게 잘 만들어진 드라마의 한 전형을 제시해 준다. 흔히 주제의식과 세련된 기교는 서로 합치될 수 없는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건강한 주제를 올바르게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그를 능가하는 훌륭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아들과 딸〉은 우리의 드라마, 특히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드라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이상 여성의 눈물과 분노만을 팔아서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 드라마를 통해 드러난 때문이다.